2025.06 VOL 03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KoSQIN) 지역환자안전센터뉴스레터

- 전문가 오피니언
- KoSQIN 칼럼
- 환자안전 전담인력 Speak up
- KoSQIN 주요 일정

지역환자안전센터 Regional Patient Safety Center

KoSQIN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Korean Society on Patient Safety & Quality Improvement Nur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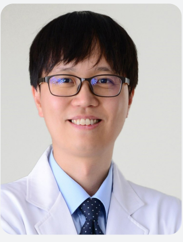
2025.06 VOL 03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KoSQIN)
지역환자안전센터뉴스레터

NOTICE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및 회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회원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oSQIN 뉴스레터는 환자 안전 및 질 향상 관련 최신 동향, 연구, 성공 사례 그리고 KoSQIN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오피니언 "의료기관 리더십의 핵심적 요소: 올바른 기획력"



울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 옥민수

리더십이 무엇인지 각기 정의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공통적이다. 리더십의 중요성은 의료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다양한 직종, 직렬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내 구성원의 헌신과 의욕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료기관의 책무성을 발휘하는 데에 필수적 요소로 간주된다. 이처럼 의료기관 내 리더십의 발휘가 강조되고 있지만, 막상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록 다양한 학회, 무수한 컨설팅 업체 등에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리더십 교육을 준비하는 입장과 참여하는 입장 모두 교육 후 왠지 모를 공허함, 모호함 등을 경험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내 리더십을 다양한 수준에서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제이다.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수많은 부서마다 직무 헌장 및 역량을 정의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리더십이 단순히 병원장 혹은 이사장만이 발휘해야 할 덕목은 아닌 것이고, 각자의 수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의 환자안전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각 부서 내 리더는 리더십 발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참고할만하다.

- 리더십 역할 수용하기
- 적절할 때 도움 요청하기
- 꾸준히 상황을 관찰하기
- 우선순위 정하기와 의사결정하기
- 수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 활용하기
- 팀 갈등 해결하기
- 팀 내에서 업무량 균형 유지하기
- 업무나 임무 위임하기
- 브리핑, 작전 회의, 디브리핑하기
- 팀 구성원이 자유롭게 말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권한 주기
- 팀을 위한 향상과 훈련 활동 조직하기
- 팀의 다른 구성원을 격려하고, 긍정적인 그룹 문화 유지하기
- 팀이 순조롭게 유지되고 기대되는 결과를 충족하는 것을 보장하기

하지만 각종 계획을 평가하고 그 개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의 관점에서 볼 때, 리더십 발휘를 위한 핵심적 요소 하나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기획 강의를 주로 진행하면서 매번 강조하는 “의료기관이 원하는 미래의 상”의 내용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보건의료사업 기획을 일반적으로 “의도된 미래의 상에 맞추기 위하여 현재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의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에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수행하고 점검하는 것이 기획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리더십은 의료기관이 그리는 미래의 상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의료기관의 리더십은 올바른 기획력을 갖춰야 한다. 구성원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바람직한 수단을 제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관 내 모든 부서에서 올바른 기획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겠지만, 특히, 의료기관의 최종 리더십을 담당하는 병원장 혹은 그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리더가 “의료기관이 원하는 미래의 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의료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전달체계, 지역완결, 의료의 질, 공공성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 책무성은 정치적 전환의 계기와 맞물려 의료기관에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 의료기관의 리더는 부서 내 리더들과 함께 올바른 기획력이 녹아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변혁의 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의료기관이 되길 바란다.

KoSQIN 칼럼 "환자안전 전담인력 대상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장 서주현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인해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단순한 업무 수행자를 넘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리더로서의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체계는 이러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은 기본적인 지식과 절차 중심의 통일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상경력이나 실무 숙련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 경력별 역량 기반의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2024년 ‘역량기반 모듈형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에 의뢰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상경력에 따라 초급자(Yellow, 3년 미만), 중급자(Green, 3~5년), 중간 관리자(Orange, 5년 이상), 최고 관리자(Black)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리더십, 의사소통, 업무수행, 변화관리 등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 모듈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2년 ‘환자안전 전담인력 역할 및 업무 범위 정립’ 결과에 근거한 전담인력 13대 업무를 기반으로 세부 역량을 정리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체계 개선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은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 정비를 핵심과제로 담고 있으며, 전담인력 배치율을 2027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째, 연차별 · 역량별 맞춤형 교육 모듈을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신규 간호사부터 중간 관리자, 최고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인력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실무 활용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둘째, 통합 교육 관리 시스템 이력 기반으로 역량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육 참여 이력, 이수 결과, 역량 평가 데이터를 연계한 디지털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담인력 개인의 성장 과정을 시각화하고, 병원 차원에서도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환자안전 전담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집단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담인력 간의 정기적인 교육 포럼, 지역별 학습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우수 사례 공유, 공통 문제 해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전담인력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과 리더십이 곧 의료기관의 안전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Speak Up!!

지난 제 2 호 뉴스레터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Speak up이라는 제목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소통하자는 취지로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참여병원은 모두 20개 기관으로 종합병원급 8개, 병원급 4개, 요양병원급 8개 기관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Speak up을 요청한 내용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후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한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제도 및 국가차원의 요청 사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는 <환자안전법>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가 있으나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여 업무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역시, Speak up에 보내주신 내용에서도 전담인력으로써 어려운 점 대부분이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감과 업무 범위에 대한 모호함**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병원이나 요양병원, 종합병원 대부분이 1명의 인력으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경영진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개선활동, 인증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담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QI 활동과 환자안전 업무, 인증 관련 업무를 모두 진행하고 있으나, **경험 부족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심적인 부담감**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학회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술대회 등에서 제시하는 환자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원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역할을 인식시키고, **직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막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법적 기준은 500병상 이상은 2명, 500병상 미만은 1명으로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은 200병상 이상일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감염관리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적용되는 병상수당 인력 배치기준이 매우 세부적이고 감염예방관리료도 산정 기준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적인 개선을 바라는 내용에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감염전담자 처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병상당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환자안전관리료도 **실제적인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과 질향상 활동의 경계선이 모호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을 전담하기 어려움으로 병원이나 종합병원도 **규모에 따라 2인 이상의 전담자**를 배치해 줄 것을 대부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험과 교육 과정이 필요하므로 간호사의 임상 경력으로 배치하기 보다는 **환자안전과 질향상 부서에서의 경력을 자격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여러가지 방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자안전법에 명시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향상이라는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 의료기관에서 적용하는 업무의 한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질향상과 환자안전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인증의 관련 기준도 법적 기준과 인증 기준에서 차이가 있고, 전담 부서나 업무에 관한 내용도 모호한 실정입니다. 국가 차원의 **중앙환자안전센터,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및 KoSQIN을 포함한 관련 학회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Speak up이 그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oSQIN 주요일정

01 2025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봄 학술대회

2025년 KoSQIN 봄학술대회가 지난 4월 8일(화) 세브란스병원 은명 대강당에서 회원 37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부 질과 환자안전전담자 업무의 생성형 AI 도구 활용, 2부 질과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조직과의 소통 및 활동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환자안전질향상전담자의 업무효율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 도구를 업무에 활용 방법, QPS 프로그램 운영에 필수인 경영진 및 직원과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방법 공유로 큰 호응을 얻었다.

개 회 사
2025년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봄학술대회
2025년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봄학술대회
일시 : 2025년 4월 8일 (화) 09:00 ~17:10

02 연수교육

3월, 5월 연수교육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수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4월은 봄학술대회로 대치하였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3월 연수교육
- 주제: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수교육 -13대 업무 중심-
- 일시: 2025년 3월 28일(금) 09:30~16:30
- 장소: 서울특별시 교통회관 2층 대강당
- 참석인원: 339명

나. 5월 연수교육
- 주제: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수교육 - 환자안전관리 분석과 개선 -
- 일시: 2025년 5월 21일(수) 10:00~17:00
- 장소: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3층 강당
- 참석인원: 194명

03 2025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사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와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가 함께 하는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사업이 5월 13일 충청지역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군산(5월 15일), 서울(5월 29일), 부산(6월 10일) 지역의 의료기관 총 4곳을 방문하여 현장지원 실시하였으며 오는 7월 8일 대구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환자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근본원인분석 방법 등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은 하반기 3개 병원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환자안전 전담자와 함께하는 현장지원활동

전 직원과 함께한 교육

04 2025년 상반기 지부 탐방 - 충청지부

2025년 상반기 지부탐방이 5월30일 충남대병원 임상교육시뮬레이션 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충청지부 회원 23명과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이하 KoSQIN) 본부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충남대병원 의료질관리실장님의 인사 말씀, KoSQIN의 2025년 사업 소개, 지부 활동 소개 및 논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QI활동, 환자안전사고 분석과 개선활동, 환자확인 등 안전지표 모니터링 방안, 의료기관인증 관련 사항 등 열띤 토론과 정보공유, 공감의 시간을 함께 하였다. 또한 이번 지부탐방을 계기로 충청지역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QPS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여 일회성의 만남이 아닌 꾸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05 예정된 행사

가. 교육일정

일정	내용	장소
2025년 6월 12일(목)	PDCA와 지표관리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킹스홀
2025년 7월 17일(목)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 활동 전략과 사례	건국대학교병원 강당
2025년 8월 21일(목)	RCA와 FMEA	부산상공회의소

나. 2025년도 하반기 지부탐방

- 방문 일정 : 추후 공지
- 방문 지역 : 강원도 지부
- 주요 내용 : 2025년도 KoSQIN 사업 소개, 지역의 주요 활동 소개, 사업 시행과 관련된 애로사항 공유 및 논의

다. 현장멘토링

- 방문 일정 : 2025년 9월 25일 (목)
- 멘토 병원 : 아주대학교병원

KoSQIN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Korean Society on Patient Safety & Quality Improvement Nurses

주소 : (0416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904호 **TEL :** 02-701-4799 **MAIL :** kosqin@qi.or.kr

COPYRIGHT© KOREAN SOCIETY ON PATIENT SAFETY & QUALITY IMPROVEMENT NURSES. ALL RIGHTS RESERVED.